

“농어촌민박 재난보험 가입하세요” 새만금개발청, 매력적인 투자환경 집중 홍보

한국외국기업협회 최고경영자 포럼서 투자 요청 · 캐나다 기업 대상 비대면 투자유치 나서

전북도, 민박시설 사업자 9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전북도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전기·가스 안전점검, 코로나19 방역점검 등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 붙인다.

도는 농어촌민박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 의무가입 시설로 농어촌민박이 추가됐다.

이에, 농어촌민박시설 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

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농어촌민박 1,163개소 대상으로 공문, 유선,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현재 가입률은 72.3%(5.31일 기준)이며, 오는 9일까지 100% 가입을 목표로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농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전기·가스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각 사업장에 의무 방문해 점검하며, 가스는 가스공급업체에서 점검하고 있다.

도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성수기인 7월 이전에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이다.

특히, 전기분야의 경우는 시·군에서 민박사업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전기안전공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점검률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어촌민박의 방역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대처토록 하고 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과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찾아 농어촌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일 서울의 호텔 프리미에서 열린 한국의 국가협회(FORCA)의 최고경영자(CEO) 포럼에 참석해 새만금에서의 사업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외국기업협회 유세근 회장, 한국유미코아상사 허삼용 대표, 노벨리스 정지향 상무, 솔베이코리아 서영훈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이에스지(ESG)경영에 대한 이해와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투자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한 신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 다양한 인센티브(투자혜택) 등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설명했다.

포럼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RE100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자동차 클러스터(협력지구) 등 신산업 집적화단지 구축에 매진하고 있는 새만금의 전략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법인세 감면과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등의 차별화된 인센티브(투자혜택)에도 호응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이날 오전 캐나다 기업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개최해 새만금에서의 사업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핀해브(Finhaven Technology; 태양광), 포터블 일렉트릭(Portable Electric; 배터리) 등을 비롯해 캐나다 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코트라(KOTRA) 밴쿠버 무역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웨비나는 새만금 개발청장의 초청인사와 코트라의 한국 투자환경 설명, 새만금 투자환경

소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새만금의 차별화된 인센티브(투자혜택)를 비롯해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사업, 미래형 자동차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사업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집중 홍보했다.

캐나다 기업들은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5년)과 투자촉진보조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투자 시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국가산단은 스마트그린 산단 구축을 통해 RE100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그린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새만금의 투자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가을철 단풍명소로 유명한 내장산 내 금선계곡 단풍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이 된다.

내장산 금선계곡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수령 290년 추정 · 단풍나무 단목으로는 국내 유일

가을철 단풍명소로 유명한 내장산 내 금선계곡 단풍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이 된다.

정읍시에 따르면 2일 문화재청은 내장산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단풍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단풍나무는 내장사와 울골 진입로인 금선계곡 탐방로에서 약 30m 정도 이격된 산비탈 하부에서 자생하고 있다.

나무의 수령(나무의 나이)은 약 290년으로 추정되고, 높이는 16.87m,

밀동 둘레는 1.13m, 가슴높이 둘레는 0.94m이다. 너비는 동서방향 20.32m, 남북 방향은 18.10m이다.

36°의 급경사지와 암석지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웅장한 수형을 이루고 있어 자연경관과 학술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장산에서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아들의 효심에 감동한 산신령이 내장산에서 가장 많은 수종을 북게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단풍나무는 가을철 내장산 단풍경관을 이루는 대표 수종이자 상징목이다. 현재까지 단풍나무 단목으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내장산 단풍나무는 정읍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내장산 단풍나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개최

지역 인권 활동 사례 · 지역별 인권 현안 공유 · 인권 보호 방안 모색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가 의장도시인 전북도에서 열렸다.

도 인권위원회는 2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인권 활동과 인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회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및 광역지자체 인권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의회는 지역활동 사례 소개, 토의 등의 순

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역 인권 활동 사례 및 지역별 인권 현안을 공유하고, 인권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과 전국협의회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전국협의회 운영 방향도 살폈다.

전국협의회 의장 정영선 전북도 인권위원장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전국협의회라 더욱 의미가 깊

다”며 “이번 전국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권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인권위원들과 함께 인권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의장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기는 오는 10월까지다.

더불어, 제3기 전북도 인권위원회의 임기가 오는 7월 10일 종료됨에 따라, 제4기 전북도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오는 6월 7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 대표자 간담회 가져

대기분야 정기 숙련도시험 설명 · 애로사항 등 청취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대기분야 자가측정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내 13개소 대기 측정대행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 대기 측정대행업체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해, 2021년 대기분야 정기 숙련도시험 설명 및 개정된 정도관리 품질 문서 분야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측정대행업체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다음 주부터 실시하는 자가측정 대행업체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일정 설명부터, 강화된 법적 준수 이행확인을 위한 측정대행업체 준수사항과 2021년도 개정된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대한 실무자 교육까지 측정대행업체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측정대행업체가 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시 발생하는 애로 및 건의사

항을 청취해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국립환경과학원 및 환경부에도 적극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유택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측정대행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측정대행업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타도의 측정대행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